

영 화



부당거래

◀황정민
▶류승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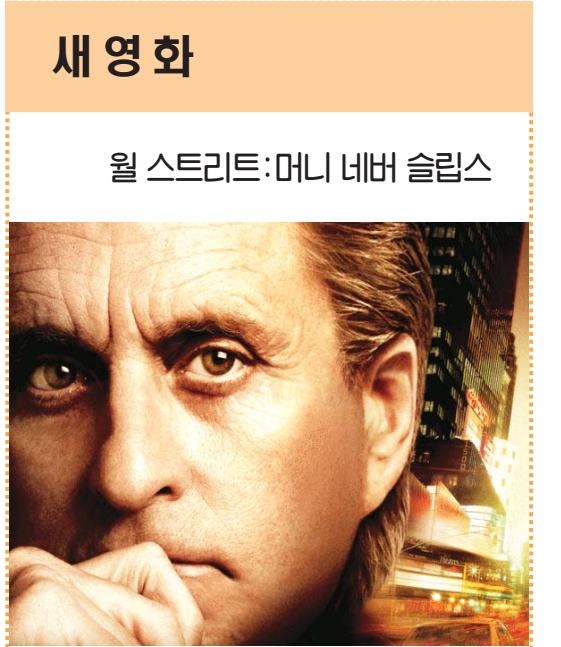
초능력자

◀강동원
▶고수



황해

◀하정우
▶김윤석



새 영화

윌 스트리트:머니 네버 슬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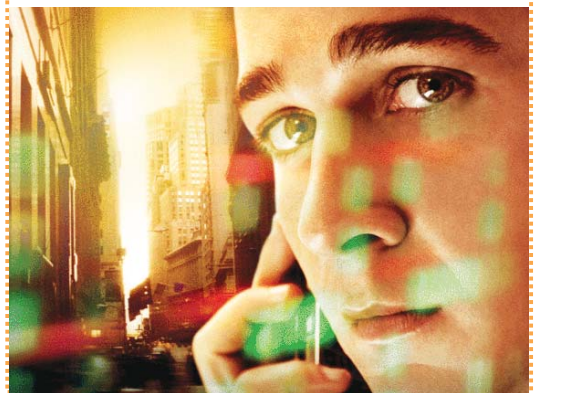
개성과 배우, 황정민·류승범 '부당거래'
꽃미남 배우, 강동원·고수 '초능력자'
완벽한 콤비, 하정우·김윤석 '황해'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낸 '윌 스트리트'의 속편으로 전면 제작 22년만에 다시 관객을 찾아왔다.
전작에 이어 다시 메가폰을 잡은 올리버 스톤은 2008년 미국을 강타했던 금융위기의 본질과 배후를 밝히기 위해 윌 스트리에 근무하는 6명의 인물을 창조해냈다.
전편에서 주식거래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월가의 약령 높은 금융전문가 고든 게코가 11년만에 출소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타고난 승부사와 신참 파트너의
탐욕과 음모의 머니게임

출감한 고든 게코는 자신의 스위스 계좌에 딸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 딸 위니 게코와 딸의 연인인 신에 증권 트레이더 제이콥 무어에게 접근한다.
딸은 자신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아버지를 혐오하지만 제이콥은 고든 게코에게 매혹 당하고, 자신의 스승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와 손을 잡는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고든 게코 역을 다시 맡아 여전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트랜스 포머'의 히로인 사이어 라버프, 엘리 밀러등이 가세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男男 매력 맞대결... 투톱 영화가 뜬다

'남성 투톱 영화가 뜬다.' 남성 톱 스타 두명을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상반기만해도 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의형제'를 비롯해, 최민식과 이병헌이 일합을 겨뤘던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용서는 없다'의 설경구와 류승범 등이 화제를 모았다.
오는 28일 개봉 예정인 '부당거래'에서는 황정민과 류승범이 호흡을 맞춘다.
이미 '사생결단'을 통해 콤비 플레이를 선보인 바 있는 두 사람은 이번 영화에서 형사와 검사로 출연한다.
'악마를 보았다'의 작가이자 사극 '혈투'의 메가폰을 잡은 박훈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부당거래'는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경찰과 검찰, 스폰서가 얽힌 추악한 거래를 다룬 작품이다.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건을 연출하는 경찰로, 류승범은 살아남기 위해 사건의 각본을 쓰는 검사로 출연한다. 스폰서로는 유해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1월 개봉 예정작 '초능력자'는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가 됐던 작

품이다.
'전우치' '의형제' 등을 통해 연속 흥행 흥판을 터트린 꽃미남 강동원과 군 제대 후 드라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영화 '백야행' 등을 통해 훨씬 성숙해진 연기를 선보인 고수가 주역으로 출연하기 때문이다.
단편 '올드보이의 추억'을 통해 충무로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조감독을 거친 김민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초능력자'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초능력자가 자신의 초능력이 유일하게 통하지 않는 소시민 규남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맞대결을 그리고 있다.
강동원이 초능력자로, 고수는 규남 역으로 출연한다.
겨울 개봉을 앞두고 있는 '황해'는 연변에서 빛에 쫓겨 살던 한 남자가 살인 의뢰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벌어지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작품. 촬영기간만 1년이 넘고 제작비도 100억원 넘게 투입되는 등 대작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황해'에서는 '추격자'에서 완벽한 콤비 플레이를 보여줬던 하정우와 김윤석이 주연을 맡았다.

'황해'가 기대치를 높이는 건 '추격자'를 통해 충무로에 스틸러 붐을 일으켰던 나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시나리오도 직접 썼다는 점이다.
데뷔작 '영화는 영화다'에 이어 '의형제'로 상반기 극장가를 점령했던 장훈 감독의 '고지전' 역시 고수·신하군 투톱 배우의 활약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고지전'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휴먼 드라마로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를 펼쳐야만 했던 남북한 병사들을 그리고 있다.
고수는 북한군과 맞서는 '악어중대'의 베테랑 장교 김수혁을 연기하며 그의 절친한 동기이자 '악어중대'의 내통자를 찾아내기 위해 고지로 투여된 강은표 중위는 신하군이 맡았다. 연기파 배우 류승용과 '박쥐'의 김옥빈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의문의 폭발 사건을 중심으로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사건의 배후 세력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모비딕'에서는 황정민과 친구가 극의 중심을 잡는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4만원부터

객실요금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퀘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평거운 연인과 함께!!**

<p>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p> <p>1관 방가?방가! (12세)</p> <p>2관 22블렛 (18세)/무적자 (15세)</p> <p>3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p> <p>4관 심야의FM(18세)</p> <p>5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6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p> <p>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p> <p>8관 된장 (12세)</p> <p>9관 참을 수 없는 (18세)</p> <p>10관 검우강호 (15세)</p> <p>11관 윌 스트리트 (12세)</p>	<p>1관 심야의FM(18세)</p> <p>2관 검우강호 (15세)</p> <p>3관 심야의FM(18세)</p> <p>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p> <p>5관 슈퍼배드 (전체)/적인걸 (12세)</p> <p>6관 22블렛 (18세)/방가?방가! (12세)</p> <p>7관 된장 (12세)</p> <p>8관 참을 수 없는 (18세)</p> <p>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p> <p>10관 윌 스트리트 (12세)</p>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최고급관**

2관 검우강호 (15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4관 된장 (12세)

5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6관 윌 스트리트 (12세)

7관 심야의FM(18세)

8관 방가?방가! (12세)

9관 참을 수 없는 (18세)

10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1관 윌 스트리트 (12세)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방가?방가!(12세)

2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3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22블렛 (18세)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5관 적인걸 (12세)/검우강호 (15세)

6관 참을 수 없는 (18세)

7관 심야의FM(18세)

8관 윌 스트리트 (12세)

색깔있는 영화상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